

브리프: 평화협정이 비핵화에 미치는 함의

평화 우선 접근법은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풀어내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열쇠다.

- 1. 평화협정은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핵 갈등의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.**
 - a.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였고 그 후 핵전쟁의 망령이 한반도를 떠돌았다. 북한이 “미국의 핵위협”에 대한 억지력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오늘날 그 위험은 더 복잡해졌다.
 - b. “선 비핵화, 후 평화”라는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보위기를 심화시켜 왔다. 압박에 기초한 비핵화 시도는 갈등을 끝내려는 정치적 공간을 협소화시킬 뿐이다.
- 2. 평화협정은 법적으로 비핵화 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다. 평화와 핵 분쟁은 법적으로 별개다.**
 - a.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. 이것은 핵확산방지조약(NPT)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다. 핵확산방지조약은 “핵보유국”에 특권을 부여하는데,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만 인정한다. 따라서 핵확산방지조약 아래에서 북한은 “핵보유국”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. 평화협정으로 인해 이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는다.
 - b.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전쟁 상태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다.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결의가 보여주듯,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상태가 아닌 평시에도 제재를 결의하는 사례가 많다.
- 3. 평화협정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 또는 개선할 수 있다.**
 - a. 평화협정은 군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.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,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.
 - b. 모든 관련국들의 국가안보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, 상응 조치와 함께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할 수 있다.
 - c. 모든 핵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(TPNW)에 참여하는 것이 전쟁의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가장 공정하고 바람직하다.

이 브리프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, ‘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, 코리아 피스 나우!’ (Korea Peace Now!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)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“평화로 가는 길: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”의 “제2장: 평화협정이 비핵화에 미치는 함의” 영문 브리프를 번역한 것이다. 영문 브리프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.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Women Mobilizing
to End the War
KOREA PEACE NOW